

DJ 이광한과 함께하는 '전주 백인의 자화상'

9일 저녁 7시30분 중화산동 복합문화공간 컬처플렉스장에서 무료공연

(재)전주문화재단은 전주를 연고로 활약한 원로·작고 문화예술인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전주 백인의 자화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돼 왔으며, 이를 위해 문화재단은 전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한 문화예술인의 삶과 예술세계를 기록하여 사료적 가치를 확보하는 한편 '전주 예술사'와 '나의 삶, 나의 예술'이라는 인문학콘서트를 이어가고 있다.

그간 총 31명의 조사기록을 진행, 총 10회에 걸쳐(11명) 인문학콘서트를 개최했다.

재단은 올해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7명을 선정해 조사기록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2회의 인문학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해에는 순수예술장르 뿐만 아니라 전주 대중문화 영역까지 확대 조명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선정자는 문학에 허소리(시), 김순영(수필), 최희형(시), 미술에 이진용(이창규, 음악(국악)에 주봉신 대중문화(음악)에 이광한 이상 7명이다.

인문학콘서트의 첫회는 7~80년대 전주를 무대로 활동한 DJ 이광한이 장식한다.

<2016 DJ 이광한 뮤직페스타-Once upon a time in 전주>가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복합문화공간 컬처플렉스장(중화산동

이중분 뒤)에서 열린다.

전주 교통 토박이인 이광한(62세)은 1973년 고사동 경전리사 근처 제과점인 오복당에서 DJ로 데뷔했다.

그는 전주MBC 인기라디오 '팝스 퍼레이드 1984년'을 진행했고 현재도 왕성히 활동 중이다.

이광한 선생은 그 시절을 회고하며 "창자 입은 자들을 위한 치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음악도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참가비는 무료(선착순 100명)이며, 행사당일 오후 7시 이후로 입장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문화진흥팀으로 문의 283-9227. /정해은 기자



전주시립국악단, 민속국악원 초청 교류음악회

전주시립국악단은 오는 8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주홀에서 정기연주회를 연다.

<선율 사람과 사람을 잇다>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과 교류를 통한 민속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위한다.

무대는 조원행 작곡의 '청'으로 열려간다. 이 곡은 충청도 민요에서 경기지역의 선법을 가진 천안산거리와 불교음악의 하나인 경서도당의 독특한 맛을 가진 화청을 주제로 작곡했다.

이어 '춤·비탈·난장' 관현악 곡이 연주된다. 곡에는 경쾌한 비트감과 우리 악기의 자연스러운 음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박경훈 작곡의 '베나리소리'에는 한오백년, 신고산타령, 패지나침장내 등을 비롯해 강원도아리랑, 상주아리랑, 밀양아리랑, 해주아리랑 등이 변화무쌍한 장단으로 연주된다.

또 전라도지방을 중심으로 한 '남도민요'도 선보인다. 무대에는 애절한 가사와 구슬픈 선율이 돋보이는 육자배기과 흥타령 그리고 흥과 신명을 돋출 삼주풀이와 개고리 타령이 연주된다.

공연은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으로 갈무리한다. 이 곡은 주제 선율을 연주하는 관현악 연주에서 사물놀이의 자유분방한 음악성이 휘몰아치는 타악연주 부문으로 이어진다. 휘모리 이후 사물놀이의 최집악기 장단을 주고 받는 짜드름으로 진행되다가 대단원에 이르게 된다.

예매는 올레마켓 사이트나 전화에 227-6278로 하면 된다. 공연문의 281-2766. /정해은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Young Classic 협주곡의 밤 개최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8일 저녁 7시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2016 청소년 협주곡의 밤'을 개최한다.

청소년 협주곡의 밤은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지난 2011년부터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어 갈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청소년들이 시립교향악단과 협연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더 큰 성장을 위한 발전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를 위해 군산시립교향악단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우수 음악인재 발굴 오디션을 통해 협연자를 선발했다.

이번 공연에는 류명우 대전지향 전민지휘자의 객원지휘로 독주부 협연 송하성(트럼펫, 군산대), 이정원(플루트, 예원학교), 김연주(바이올린, 홈스쿨), 김강(첼로, 홈스쿨), 김유정(피아노, 국민대2), 합주부 임유미(트럼펫, 군산대4), 송세은(비올라, 군산대4), 이형기(첼로, 전주예고2)가 무대에 오른다.

주요 연주곡은 오페라 서곡 로시니의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으로 시립교향악단이 시작을 알리고, 트럼펫 Neruda 『Trumpet concerto in E-flat major』, 플루트 모차르트 『플루트 콘체르토 K313』, 바이올린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콘체르토 op85』, 첼로 엘가 『첼로 콘체르토 op85』, 피아노 쇼팽 『피아노 콘체르토 No.1 op 11』을 연주하며, 교향악단 단원들과 합주부(트럼펫, 비올라, 첼로)가 협연을 펼친다. 김봉근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공연 협연자들은 공개오디션을 거쳐 발굴한 유망청소년들로 꿈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는 청소년 협연자들은 물론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관객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연티켓은 전석 무료로 금강방송(www.kn.tv)을 통해 예매하면 된다.

/군산=문정근 기자

VR 실감 컬러 재현 기술' 국제표준 채택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가상현실(VR) 실감 컬러 재현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국제표준 채택은 2020년 14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VR·증강현실(AR) 시장에서 관련 기술을 선점, 기술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기존 VR·AR 콘텐츠는 세 개의 색상(RGB: Red·Green·Blue)만을 활용해 색을 표현해 왔는데, 이번에 채택된 기술은 다(多)채널 색상을 구현할 수 있게 한다.문체부는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파급력 있는 실제 VR·AR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7월 발표한 '가상현실 콘텐츠산업 육성 방향'의 내용을 기반으로 가상현실 콘텐츠의 R&D,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내년 VR 콘텐츠 육성 사업에 책정된 금액은 약 445억 원이다. VR·AR 분야의 기술 개발 수요 확대에 대응해 전년 대비 30% 증액된 약 233억 원을 내년 관련 분야 R&D 예산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중국 측에서 완웨이밍이 나무조각을, 러란이 미니상아·옥조각을, 가오용이 진회초롱을, 차우훙이 켈트를 그리고 한국 측에서는 전북서각회 정병호 작가 외 9명이 서각을, 소빈이 인형을, 신통대가 솟대 등 70여점을 선보인다.

한-중 공예교류 전북 전시회

마중물갤러리에서 섬세한 미니조각 등 70여점 선보

페터날이 전시관으로 거듭난 마중물갤러리에서 한국과 중국의 전통공예를 선보이는 전시가 오는 15일까지 열린다.

(사)한중문화협회전북지부가 주최하는 이번 한·중공예교류전시회에는 전통공예의 예술성이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양국의 작품을 전시한다.

작품은 중국 측에서 완웨이밍이 나무조각을, 러란이 미니상아·옥조각을, 가오용이 진회초롱을, 차우훙이 켈트를 그리고 한국 측에서는 전북서각회 정병호 작가 외 9명이 서각을, 소빈이 인형을, 신통대

가 솟대 등 70여점을 선보인다.

이들 작품 중에서 미니조각은 공예미술 중 가장 정교하고 섬세한 공예품으로 중화문화의 정수를 표현한다. 작품은 잠깐만 한 상아 절편이나 편죽 같은 데에 새길 수 있으며, 확대경이나 현미경을 이용해야 조각 내용을 볼 수 있다. 러란 작가는 쌀알 만한 크기에 태극기를 그려 넣은 작품을 전시하며 양국가의 아름다운 동행을 소망했다.

가오용 작가는 태극기문양의 연을 청소년(사립태권도장 30명, 남초등학교 70명,

블랙벨트30명)들이 직접 만들어 날려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지난 4일에는 새 단풍에서 연을 날리며 양국가의 상생과 공동번영을 기원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중국작가들은 난징시 무형문화재 계승자들로 이들의 작품 전시장과 작업장은 강소성 난징민속박물관에 위치해 있다. 이곳 박물관은 전주의 한옥마을처럼 중국식 전통기옥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방문한다.

류연지단장(남경민속박물관관장)은 "전통공예교류는 양국민들의 삶의 지혜와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의 (사)한중문화협회전북지부 010 9438 5701. /정해은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9월 7일>

▷쥐띠
46년생: 금전운이 좋아지고 사람과 화합이 잘 되는 운이다.
60년생: 인덕이 따르니 어려움도 도와줄 사람이 생긴다.
72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리니 주변을 살펴 조심스럽게 진행하라.
84년생: 이득이나 번 돈을 하면 막혀있던 운.

▷소띠
49년생: 금전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일이 생기니 미리 대비하라.
61년생: 타인에게 베풀면 덕으로 돌아오는 운이다.
73년생: 동기근로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 마음을 비워라.
85년생: 뒷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쉽게 진행된다.

▷호랑이띠
50년생: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62년생: 지나친 과단은 실재를 부리니 천리길도 한걸음 두터74년생: 좋은 일과 희망 들으니 타인의 일에 나서지 마라.
86년생: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가 심한 운.

▷토끼띠
51년생: 화합이 필요한 곳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다.
63년생: 경쟁자가 나타나 쉽게 결실을 맺을 수 없으니 주의하라.
75년생: 계획을 변경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결과
87년생: 육체적으로도 좋은 때가 아니니 건강에 유의하라.

▷용띠
52년생: 편안한 운이니 하고자 하면 좋은 결과.
64년생: 주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말속에 답이 있다.
76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 우리는 금물이다.
88년생: 정도를 지키며 나아가라.

▷뱀띠
53년생: 미루지 말고 행동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
65년생: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어라.
77년생: 처음에는 힘드나 이겨내면 노고에 대한 보답이 있는 운이다.
89년생: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라 하는 운이다.

▷말띠
54년생: 때를 기다리며 내실을 다져라.
66년생: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어라.
78년생: 사람을 글리 상대해야 할 것이다.
90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리니 마음을 비우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

▷양띠
55년생: 기존의 것에 기대해왔자 결실을 맺지 못하니 변화를 가져라.
67년생: 사소한 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79년생: 외부로 확장해보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운이다.
91년생: 금전관리에 주의하고 중요한 물건은 가지고 다니지 마라.

▷원숭이띠
55년생: 좋은 결실을 맺으며 행운이 따르는 운이다.
68년생: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80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면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
92년생: 능력을 인정받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운.

▷닭띠
57년생: 상대가 처음과 나중의 행동이 다를 것이다.
69년생: 이성이나 친구 사이에 실각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81년생: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93년생: 원행은 심하고 일찍 귀가하는 것이 될이 없었다.

▷개띠
48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 운이다.
60년생: 인정적인 운이다. 사람들의 모임도 길하고 금전 운도 좋은 운
72년생: 외부적으로 구설, 시비, 실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4년생: 내손에서 나간것에 대해 아까워 하지 마라.

▷돼지띠
47년생: 사소한 일에도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운.
59년생: 괴물, 괴물은 심기라.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
71년생: 과민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지니 되돌아볼 필요성이 따른다.
83년생: 서두르지않는 않는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